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도 15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9.09(수)

지부공동파업 2일차 2개사업장 의견접근

노측 “늦장 교섭 책임 전가 말아야”... 빠른 의견제시 촉구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15차 집단교섭이 9월 9일 (수) 10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우영산업 사측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교섭에는 노측 정진홍 지부장 외 18명, 사측 우영산업 김대근 본부장 외 12명이 참석했다. 경주지부 박인룡 총무부장의 사회로 교섭 성원을 확인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교섭대표 모두발언에서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 본부장은 “지부 쟁대위 방침에 따라 파업 2일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사업장 마다 제조하는 제품에 따라 재고 부족으로 고객사 결품이 예상되는 금속 사업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 물류팀에서도 재고 문제와 관련한 연락을 받고 있다”며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높은 사업장의 경우 고객사와의 신뢰가 무너지면 향후 물량 확보와 고용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가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임단협 교섭에 임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사용자측 교섭대표 말씀을 잘 들었다”며 “굳이 반박하자면 7월 15일 이후 보충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오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많은 시간 동안 미리 의견접근을 하고 교섭의 효율성을 높였다면 지금처럼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도 타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타결한 사업장도 있다”며 “그럼에도 본인들이 자처한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에 빨리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매년 교섭을 하다 보면 벼랑 끝 전술을 사측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라인이 끊어질 만큼의 위기를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이 그것까지 극복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사업장들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사 의견접근으로 조합원 추인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 제시에 앞서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우영산업은 지난 4월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평균 2년 치 이상의 임금 인상이 현재 지급되고

있다”며 “회사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있는 만큼, 제시안이 기대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우영산업과 엠에스오토시스의 2026년 임금인상 제시안이 제출됐다.

이에 금속노조 경주시부 정진홍 지부장은 “우영산업과, 엠에스의 임금 제시안을 의견접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차기 16차 교섭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우영산업 제시안(의견접근)

구분	1차 제시안 (09.09)	비고
시급	10원 (2,400원)	- 소급분 26년 10월 29일(목) (25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중 지급일 당일 재직자)
일시금	10만원	- 26년 9월 22일(화) (지급일 당일 재직자)

○ 엠에스 제시안(의견접근)

구분	1차 제시안 (09.09)	비고
시급	100원	- 호봉승급 별도
유급휴가	1일	